



# 조사료 생산 구호에만 그치지 말자



이 종 영

본회 감사, 충남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99-1

IMF 한파가 휘몰아친 지금 이 땅에 대다수의 축산 농가가 갈팡질팡 하고 있다. 아니 차라리 정신이 모두들 혼수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답 일지도 모른다. 왜인가 환율때문에 폭등한 배합사료 가격과 저하된 배합사료 질 때문에 소, 돼지는 증체가 안되고 닭은 산란율이 떨어지고 젖소는 우유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환율이 만약 1\$당 1,600원선이라면 전년도 대비 배합사료 원료 수입금액이 연간 무려 2조 4천억원이라는 액수를 축산농가에서 추가부담을 해야만한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된다.

배합사료에만 꼭 의존해야 하는 양계, 양돈은 어쩔수 없겠지만 우리 낙농육우쪽은 다소 사정이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우리는 조사료를 생산하여 자급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조사료 생산을 어떻게 하였는가?

조사료 생산이란 매우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우며 외면했으며 게을리 하고 우선 편한쪽인 배합사료 위주의 사양관리를 하다보니 축산물 생산비만 상승되고 가축

은 생각지도 않은 각종 질병에 걸려서 약값과 치료비도 무시못하게 비중을 차지했고 심지어 한우에게도 번식장애와 분만시 난산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된다.

환율이 1\$당 800원선으로 유지될때는 앉아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토지구입비용, 농기계구입비용, 제때 구하기도 힘든 비싼 인건비, 파종에서 수확때까지 까다로운 어려움을 모두 계산하면 역시 배합사료 위주의 낙농업이 훨씬 편하고 경제적이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부인 못할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며 앞으로는 더욱 더 다를 것이다.

과연 우리가 살아 남으려면 낙농육우산업에서는 배합사료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느냐가 생존의 비결이다.

## “양질의 조사료 생산”

목장을 경영하는 축주라면 누구나 귀가 아프게 들어온 이야기이다. 하지만 막상 조사료를 생산하려 하니 없는 것이 너무 많고 갖추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토지구입, 농기계구입, 비싼 인건비 모두 따지면



고 해서 현지에 영세한 축산인은 감히 꿈도 못꾸는 인근 국, 공유지를 임대해서 나무는 벌채해서 광산에다 팔고 형식상 조성된 초지를 미끼로 국내 젖소 가격보다도 싼 도입우 딱지를 받아서 비싸게 팔고 즉, 핑먹고 알먹고 하였으며 일부 축산농가는 초지조성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조성해서 도입우 몇마리 더 분양받으려고 시, 군 축산계에 줄을 대고 서있던 철새 축산인 그들은 지금 모두 다 낙농육우 현장을 떠났다. 단물은 다먹고 떠난 것이다.

차라리 수입건초, 암모니아처리 벼짚, 그리고 배합사료 쪽으로 갈수밖에... 그러다 보니 도처에서 우사지를 땅만 있으면 H-빔으로 100두 이상 사육할 수 있는 초현대식 우사가 속속 등장했고 최첨단시설이 설치 운영되지 않았는가.

소 산업에 가장 기본인 조사료 생산은 뒷전으로 생각했고 우선 다두사육, 인건비 절감만을 추주는 생각하면서 투자했고 정책당국에서는 세계화니, 국제경쟁력이니, 경쟁력강화만 외치며 가족 노동으로 착유우 30두~50두를 사육해야만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옆에서 부채질을 하면서 소산업에 가장 기본인 조사료 생산면적은 제시하지도 않고 우선 농림부에 초지사료과도 폐지하고 각 대학교 초지학계 연구비도 삭감했으니 어떻게 보면 정책당국, 축산농가 모두 조사료 생산 외면에 박자가 잘못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 때는 정부에서 "초지조성"하면서 일선 시, 군에 초지조성 면적을 할당 해가며 강요해서 적지이건, 부적지이건 마구잡이로 조성된 초지조성지가 그간에 관리 소홀로 인해 가시덤불로 변했고 아카시아나무, 잡목만 무성한 농촌의 흉물로 되지 않았는가. 한참 초지조성 열기가 뜨거웠을 때 "그 때 그 시절 즉, 80年代" 낙농육우산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힘이 있다

초지조성 후에 관리 및 이용은 조금도 생각 안했고 무조건 초지면적 확대에만 주력했다. 그때 관계부처에서 각도별, 지역별로 계절에 온도변화, 연간 강수량, 습도 등을 감안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초지조성 계획을 세워서 농가에 교육 홍보를 철저히 했다면 그 많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고 멸절할 임야도 훼손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오늘에 어려운 낙농육우 산업을 자초 했다고나 할까. 그러했다 지난날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초지조성은 이미 실패했다. 실패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오직 "조사료 증산을 위하여" 새로운 새 출발을 시작하자.

최근에 축산전문지를 펼치면 모두다 "사료비절감과 조사료증산" "기성초지 최대한 활용" "부존자원 이용" "음식물 찌꺼기 이용" "논뒷구루에 답리작 재배" 등등 과거에 들던 이야기의 재탕, 삼탕 홍보하지만 새로운 것과 일선현장에서 쉽게 활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 조사료 증산은 길이 안보인다. 무엇보다에 조사료 증산이 안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점이며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원인은 어디있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조사료 생산에 효과는 배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현장에서 있는 애로와 원인 그리고 방



## 이달의 제언

법과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첫째, 양질의 조사료는 땅에서 재배되며 그곳에서 얻어진다. 그러나 현장의 축산인은 막대한 토지구입비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를 당국에서는 먼저 국, 공유지 부실초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현장에 조사료생산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에게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고, 개인소유의 초지조성지라 해도 조성자가 축산업을 포기했거나 이농으로 인해서 이용을 안하고 있으면 저렴한 임차료를 내고 가까운 축산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초지조성이 안된 국, 공유지도 풀을 심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초지조성 후 관리, 이용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인근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잘 지도 해주길 바란다.

둘째, 우리 주변에 쓸만한 임야는 거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농촌을 떠난 사람, 도시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쓸만한 토지가 현장에 주인없이 놓고 있는 것이다.

IMF 체제하에서 나라 살리기 운동으로 금모으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 되듯이 각지방 단체장계서는 현재 소 산업의 어려움과 배합사료 원료 수입에 소요되는 달러를 연간 얼마가 소요된다고 호소하며 임야가 현재 축산인에 의해서 우량 초지로 변했을 때 주변환경, 주변낙농가의 소득, 국가적인 외화절감효과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가치 및 지가의 상승효과 등등을 설명해서 외지인 지주와 현지 낙농가가 서로 잘 연계되게 해 주고 정부에게는 외지인에 토지소유 권한은 인정되되 토지에 이용권한은 현지 축산인에게 주는 정책이 나와야만 되겠다.

셋째, 우리가 나라의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양질의 조사료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그간 계속해서 추진되온 논뒷그루 답리작재배 뿐이라고 본다. 그곳에서 라이그라스, 호맥을 재배하는 바로 겨울농사 뿐이다. 임야는 전체면적에 60~70%밖에 조사료 생산지로 활용을 못하며, 밭도 딱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수이지만 논은 배수관리만 잘하면 전체면적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사료 생산에 비지땀을 흘려보자.  
그리고 우리주변에 버려진 작은  
자투리 땅이라도  
놀리지 말고 이용하고  
우리현장에서 새로운 조사료 생산  
방법이 있으면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낙농육우에 보도해서  
전국에 낙농육우농가에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하루속히 지금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농한기에 노는 땅에서 질 좋은 조사료를 많이 얻는 것이며 개발비용도 안드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사료작물 재배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논이 쌀전업농에게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있고 축산인은 예외이다. 만약 농림부가 진정 조사료생산 의지가 있다면 가장 손쉬운 답리작 재배를 축산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쌀전업농에게 지원되는 농지구입 자금을 답리작을 위한 양축농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쌀전업농은 1년에 벼농사 하나로 끝이 나지만 축산농가는 벼수확 후 벼짚을 이용하고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기회도 되고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료작물포 역할도 할 것이다.

지금 논을 임차하려면 논 소유주는 매우 꺼려하며 대답을 안한다. 또한 임차가 되도 적기파종이 이루어지지 못하기에 월동하려면 동해와 습해로 사료작물이 많이 죽는다. 파종 적기를 놓치게되는 이유는 이렇하다. 논 소유주는 여러농가에 콤바인작업(10~13일)을 한다.

벗짚수거도 마찬가지다. 결속에서 운반까지 (7~12일) 중간에 비가 내리면 (3~4일) 미루어 진다. 그러나 축산농가 소유의 논이라면 조생종 품종에 벼를 재배 수확 후 적기에 파종이 완료될 것이다. 때문에 논을 직접 소유해야만 답리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상기 세가지만 해결된다면 조사료 증산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며 생산에 근본이 해결된다고 본다.

농림부는 IMF 긴축재정 속에서도 조사료 사업만큼은 작년 348억원에서 400억으로 늘려서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라 발표했지만 조사료생산에 가장 근본은 땅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현장에서 땀흘리며 조사료 생산에 몰두하고 있고 낙농육우인에게 쉽게 토지를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낙농육우인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출발하자. 과거에 배합사료와 수입건초를 이용하는 것이 조사료 생산비보다도 싸다고 했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이번에는 생각하지도 않은 환율인상 때문에 사료가격이 30~40% 폭등했고 그로인해서 소가격이 폭락해서 우리가 갈팡질팡 하지만 만약에 중동 오일전쟁 때처럼 미국이 사료곡물을 무기화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과도 같은 젖소의 그 때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보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사료 생산에 비지땀을 흘려보자. 그리고 우리주변에 버려진 작은 자투리 땅이라도 놀리지 말고 이용하고 우리현장에서 새로운 조사료 생산 방법이 있으면 협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낙농육우에 보도해서 전국에 낙농육우농가에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교환하고 하루속히 지금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정부는 언제나 일선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축산농가에 작은 목소리로 큰귀로 경청하면서 언제나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조사료 생산정책을 펼쳐주기 바라며 전국에 우리 낙농육우인도 이제 더이상 어정쩡히 갈팡질팡 하지 말고 땅과 풀 그리고 젖소와 우유를 생각하며 내 목장에 남다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도 게을름 없이 자만, 방심하지 말며, 완전한 조사료 생산에 프로근성을 가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과거처럼 누가 해결해주겠지 하며 낙농업에 전문지식이나 테크닉도 없이 남이 하니까 따라가면서 장미빛 환상에 젖어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분명히 낙농육우산업이 위기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원망과 탓만하지 말고, 낙농육우산업의 가장 기본인 조사료 생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높은 소득을 보장받으려면 많은 우유를 생산해야 하고 많은 양질에 우유는 풀에서 얻어지며 양질의 풀은 바로 축분을 가장 많이 먹은 흙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에 배합사료 가격 폭등의 위기속에서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는 기회로 삼기 바라며 이 기회를 반드시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며 오늘도 또 내일도 “갈고 씨뿌리며 거두워드리는” 우리나라에 낙농육우산업이 되기 위해서 꼭 이번만은 구호에만 그치는 조사료 생산이 되지 말자. ☺

〈연락처:0451-641-9330〉

## 조사료 증산하여 낙농경영 안정찾자.